

# Коджон и Россия

команды  
«Ёлка»



## Между....



# История

이민파천의역사

Убийство королевы  
Мёнсон японцами.

→ 명성왕후의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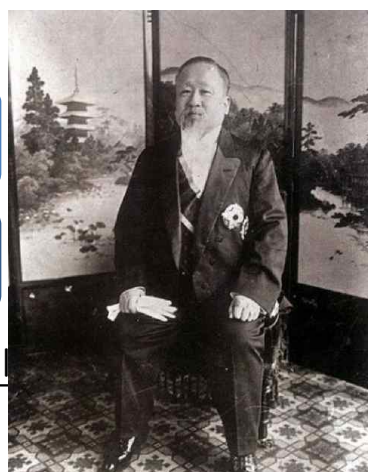
# История

이민파천의역사

Убийство королевы  
Мёнсон японцами.

Бегство короля Коджона в  
русскую бывшую миссию.

→ 고려시대공민왕의파신



# История

이민파천의역사

Убийство королевы  
Мёнсон японцами.

Бегство короля Коджона в  
русскую бывшую миссию.

Он руководил страней  
с 11.02.1896 по 20.02.1897.

→ 알찬공민에서통치



# Помощники

고종의조력자들



Ли Бонджин



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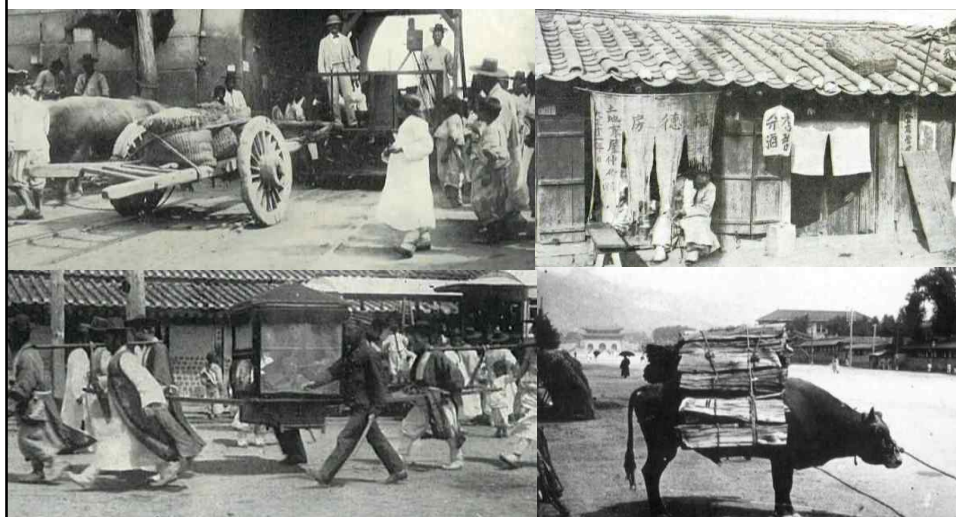
# Старание модернизации

근대화를 위한 고종의 일년



# Старание модернизации

근대화를 위한 고종의 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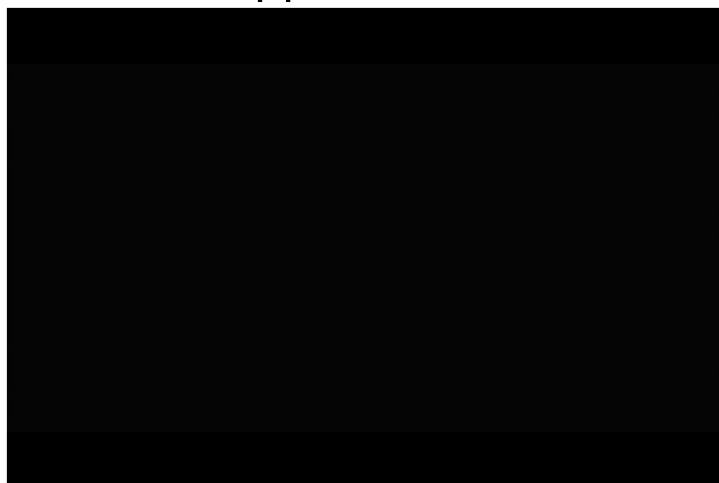
## Здание российской миссии

구리시공관 건물



## Видео

«Коджон и Россия»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 러시아 민족 및 러시아 거주 고려인 간 관계

한양 국제학 대학원  
한국학과 학사  
안젤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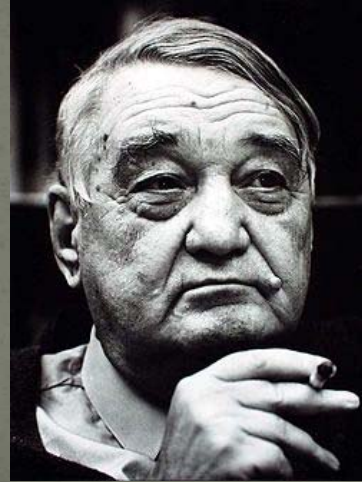
## 목차

- 서론
- 이론
- 러시아 거주 고려인
- 결론



## 서론

- 러시아 민족 및 한국 민족 간 관계
- 인류학 이론:
  - Лев Гумилев
  - Пассионарная теория этногенеза[민족의 에너지 용량을 가리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민족 집단 형성 이론]



## 러시아 민족 및 한국 민족 공통점: суперэтнос



삼국 시대 고구려, 신라 및 백제  
3개 국가



## 조선 국민, 러시아로 이주

- 19세기 후반
- 1958년 아이훈 조약 및 1960년 베이징 조약  
결과로 합병된 러시아  
극동 지역 → 조선과의  
공동 국경
- 빈 생태적 지위 차지

↓  
러시아 민족과 공생



## 러시아 당국의 태도 전환

- 19세기 말 러시아 사람, 중앙 지역에서 극동  
지역으로 이동 시작
- 고려인으로 인해 생태적 지위 이미 차지되었음
- 러시아 민족 → 충돌 ← 러시아 거주  
고려인
-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용하여 살고 있는 키메라의  
상태

## 러시아 거주 고려인 형편

- 1884년 러-한 수교 후 러시아 국민이 되어도 땅 임대만 가능
- 한일합병조약 체결로 인해 러시아로 가는 이주 활성화



일제 강점기

## 러시아 10월 혁명 후

- 1937년 - 극동 러시아 국경 한민족의 이주에 대한 법령
- 동화 과정 활성화



1937년 강제 이주를 회상하며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적어 놓고 있다

## 소련 붕괴 후

- 중앙 아시아 공화국, 독립 획득
- 고려 사람, 재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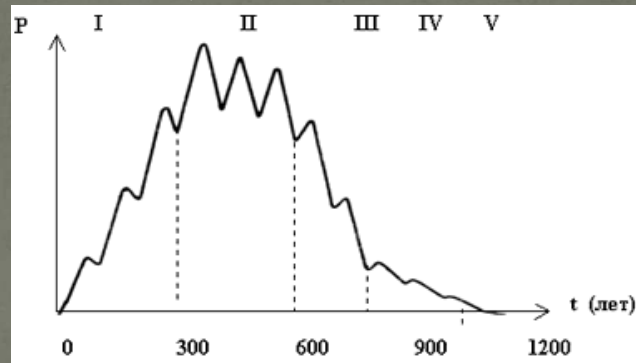
## 고려 사람 현재 상황

- 1993년 고려인 권리의 복귀에 대한 법령



## 결론

- 고려 사람, 한국, 러시아, 중앙 아시아 및 유럽 영향을 받았음
- 가장 밀접한 문화, 러시아 문화



민족의 연령에 따른 에너지 용량의 변형을 보여주는 그래프

## 비디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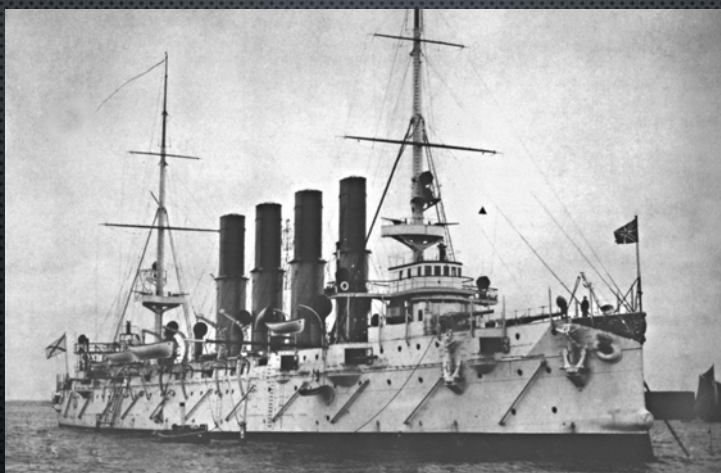
# БЕССМЕРТНЫЙ ПОДВИГ РОССИЙСКОГО КРЕЙСЕРА «ВАРЯГ» В КОРЕЙСКОМ МОРЕ

Ли Чеонг Мин

УНИВЕРСИТЕТ СОНГЮНГВАН

ФАКУЛЬТЕ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 ИСТОРИЯ КРЕЙСЕРА «ВАРЯГ»



## КРЕЙСЕР «ВАРЯГ» В КОРЕЕ



## ПЕРЕДАЧА ФЛАГА «ВАРЯГ»





## ОБРАЗОВАНИЕ РУССКОЙ УЛИЦЫ В ГОРОДЕ ИНЧХОН



П.Т. МАЛЬЦЕВ. КРЕЙСЕР ВАРЯГ. 1955 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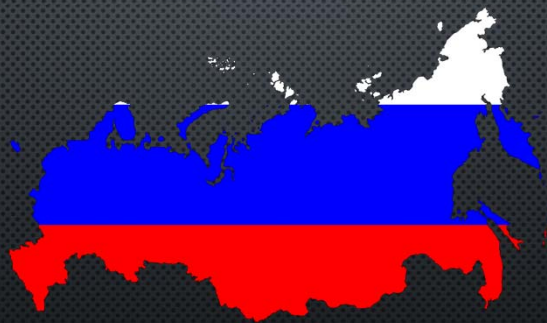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СКУССТВА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 한국어와 러시아어 속담의 국가 특징적 신호 비교 연구

발표자: 티테녹 안나

## 목차

- ◉ 러시아의 한국학
- ◉ 한국어와 러시아어 속담 연구의 필요성
- ◉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어법의 구조
- ◉ 속담의 국가 특징적인 신호 비교
  - 음식, 전통의상, 역사, 말, 종교, 동물과 관련된 속담 살펴보기.
  - 비슷한 속담 비교
- ◉ 한국어와 러시아어 속담을 연구할 필요

## 러시아의 한국학 러시아어와 한국어 어법 연구의 필요성

- ◉ 러시아에서 한국학과 한국어를 연구하는 것은 19세기 중반에 시작
- ◉ 한러사전: 야시느스키 G.F. Yashchinsky
- ◉ 한국어 문법, 방법론: 마주르 (Mazur), 드미트리예바 (Dmitrieva), 코느제비츠 (Konstevich)와 홀로도비츠 (Holodvich)
- ◉ 러시아어로 출판된 문헌이 소련에서의 한국학 기초

## 한국어와 러시아어 속담 연구 필요성

- ◉ 현대언어학 연구의 중심 화제
- ◉ 속담은 반영하고 있는 것은:
  - 문화, 역사, 사고 방식, 지리적 위치, 날씨, 생활 태도, 예의, 도덕, 윤리, 마음, 민족의 성격
  - 우리 사회가 발전되어 언어가 이 변화를 겪게 되어도 속담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는 연대기와 같이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고 있다.
- ◉ 사회가 발전되어 속담이 연대기와 같이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고 있다.
- ◉ 속담 비교 연구의 필요성:
  - 인간의 심리 이해,
  - 두 나라 문화의 이해



## 속담이란 옛날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말이다

- ◉ 언론과 굳어진 표현
- ◉ 속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역사
- 문화
- 사상
- 감정
- 사고방식



## 한국어 속담의 문장 성분의 기능



- ◉ 주어:  
수박 겉 삶기란 내용이나 참뜻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대충대충 일한다는 것이다.
- ◉ 서술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여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은 쇠귀에 경 읽기이다.
- ◉ 부사어 :  
우리 어머니께서 요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 ◉ 어법의 표현은 한 문장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 러시아어 속담도 이런 문장 성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속담과 비슷한 개념 (동의어) 한국어

- |                         |      |
|-------------------------|------|
| ➤ 격언(가르치는 말, 유교)        | ➤ 속어 |
| ➤ 이언 (항간에 떠돌며 쓰이는 속된 말) | ➤ 속설 |
| ➤ 옛말                    | ➤ 비언 |
| ➤ 상말                    | ➤ 이담 |
| ➤ 상담                    | ➤ 고담 |
| ➤ 관용어(습관으로 쓰는 말)        | ➤ 금언 |
|                         | ➤ 속언 |
|                         | ➤ 격담 |
|                         | ➤ 이어 |

## 속담과 비슷한 개념 러시아어

- ◉ 속담 “п о с л о в и ц а” - “proverb”
- ◉ 아포리즘 “а ф о р и з м” - “aphorism”  
-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
- ◉ 관용구 “п о г о в о р к а” - “saying”  
어떤 말에 따라 지혜 또는 진리의 힘찬 표현

## 속담의 “국가 특징적 신호”

•속담 - 현실에 대한 상상

• 자기 구조에 전통적인 풍습과 관련하여 생활 태도와 언중의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경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국가의 특징에 가리키는 신호

## 음식과 관련된 권용어

- ◉ 러시아어
- ◉ 생선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다
- ◉ 한국어
- ◉ 죽도 밥도 아니다



## 음식과 관련된 속담

- 팬케이크 만들기
- 식은 죽 먹기
- 누워서 떡 먹기



- 빵을 미끼로 사용해도 소용이 없다



- 미역국 먹기



## 대표적인 의상과 관련된 속담

- 부츠의 한 짝이 다른 짝에  
딱 어울리다 (죽과 장이  
맞다)
- (뜻: 한 쌍의 남녀)
- 치마바람



- 셔츠를 입은 채로  
태어난다



- 고무신을 거꾸러 신다





## 역사와 관련된 속담

- ◉ 칸 마마이가 지나갔다
- ◉ 함흥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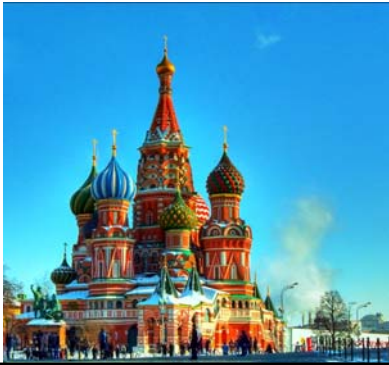
## 말과 관련된 속담

- ◉ 혀가 키예프까지 데려다 주다
- ◉ 발없는 말이 천리 건다



## 종교와 관련된 속담

- 하느님의 품속에 들어 있는듯이 살다
- 집도 절도 없다
- 중염불가듯이
- 공든 탑이 무너지라



## 동물과 관련된 속담

- 노력없이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 산에 가야 범을 잡기 (호랑이)



그림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이만아트

## 비슷한 속담

### 러시아어

- ◉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 ◉ 목이 빠지다
- ◉ 불 없이 연기가 있을  
리가 없다

### 한국어

- ◉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 ◉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 결론

- ◉ 특징적인 신호를 어원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의 사고 방식, 대표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 ◉ 살펴본 바와 같이 속담은 각 나라의 역사, 생활  
태도, 민족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 ◉ 이의 증명은 속담에서 나타나는 국가 특징적  
신호
- ◉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연구할 때 속담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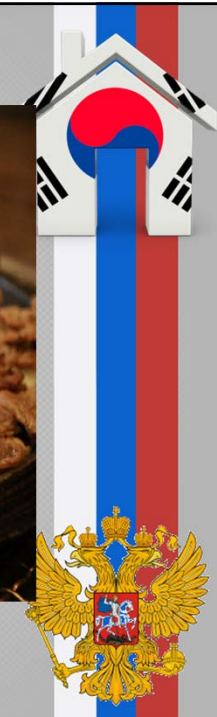
# UCC를 제작하면서...

UCC를 통해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오해  
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  
- '개를 먹는 민족', '김치만 먹는 민족', '한국의 미는 인공적인 미이다.'  
'한국인은 안경을 쓰고 태어난다.', "한국인은 키보드를 안고 태어난다." 등등
- 한국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도와야 한다!  
① 한국은 매운 음식밖에 없다 → 다양한 한국음식 소개  
② 한국사람들은 폐쇄적이다 → 전부 다 폐쇄적 X, 부끄러움
- 한국 안의 러시아  
- 러시아어 학원, 러시아 식당, 러시아와 관련된 메디컬 투어,  
러시아 관련된 행사, 대회등등 → 양국간의 관계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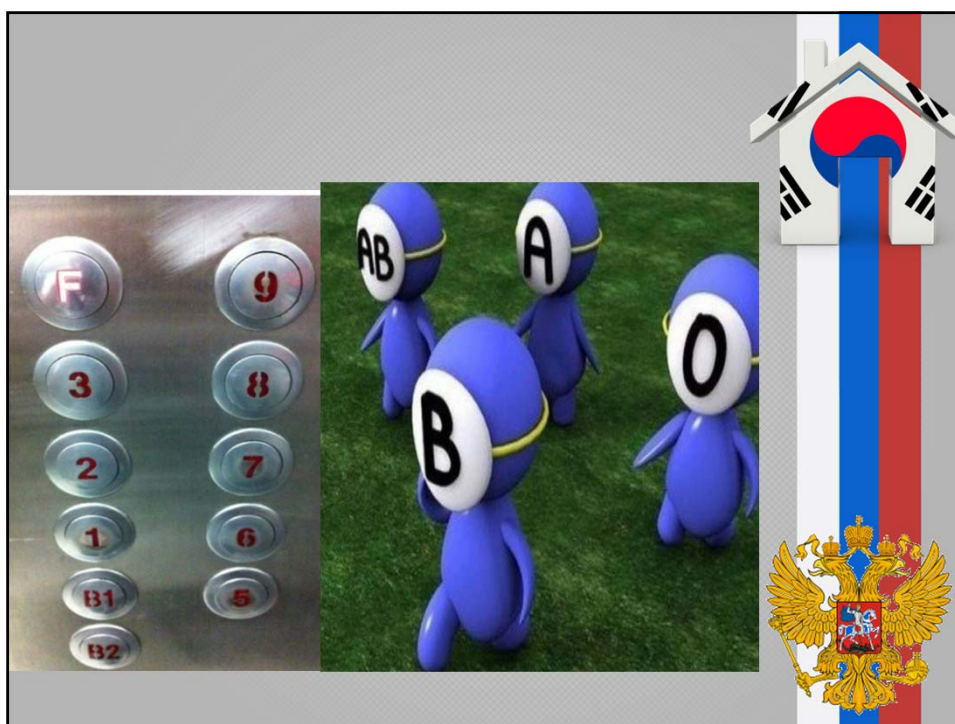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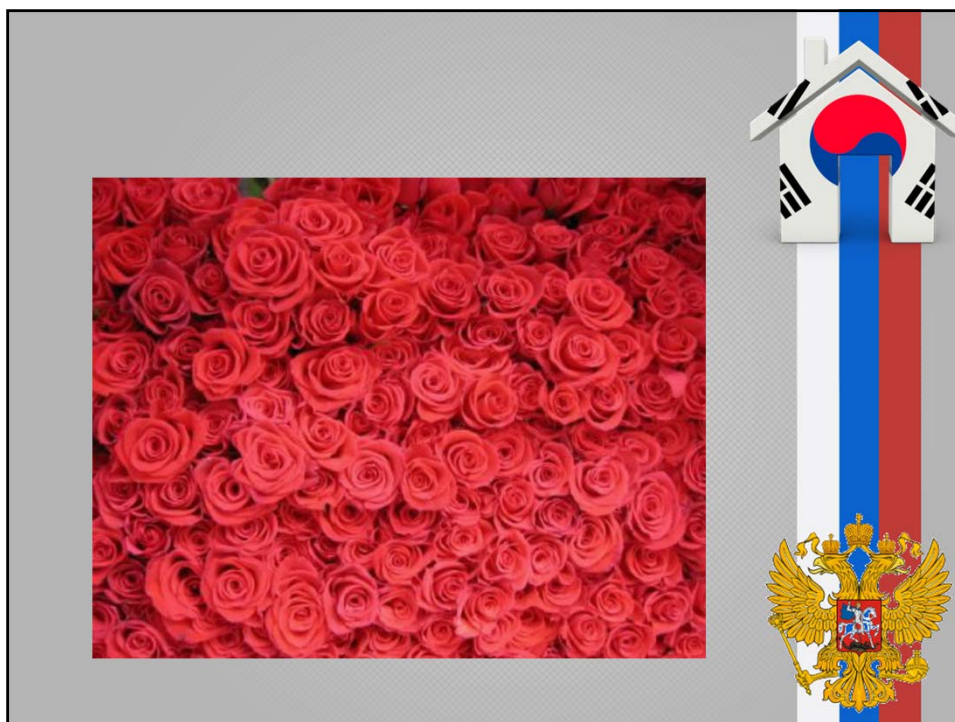
PHOTOGRAPHED BY SSU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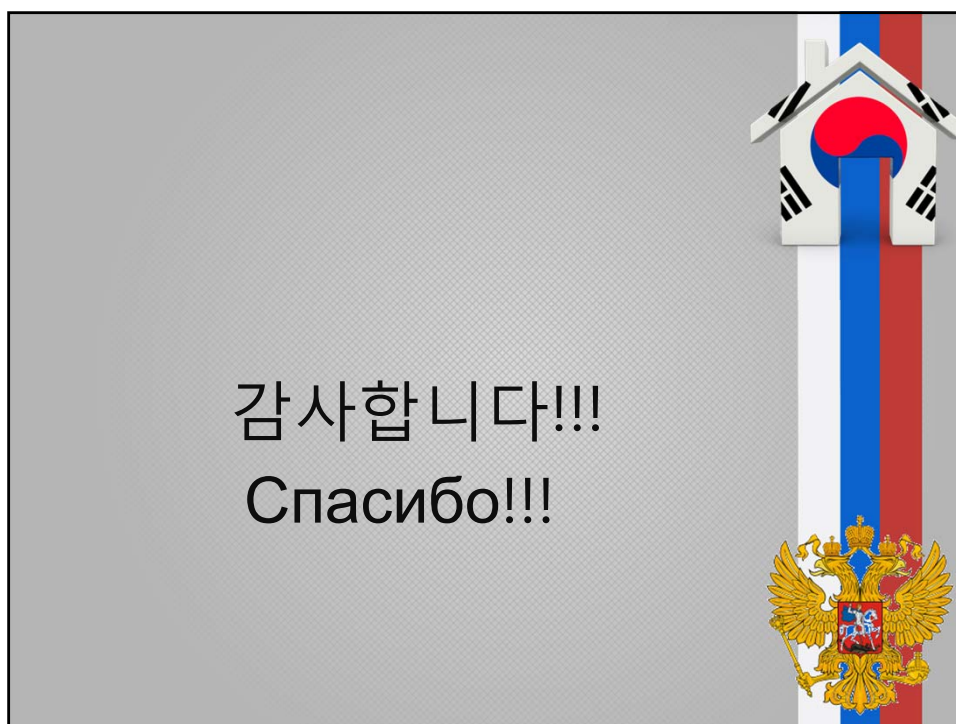












## 바둑인으로서 걸어온 길



어떻게 보면 바둑을 한국문화라고 표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러시아문화랑 세계문화랑 어떻게 연결돼있는지 이 글통해서 알려드리고 싶다.

한국에서는 바둑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지만 유럽이나 러시아에서는 아직 새롭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에 들어가봐서 바둑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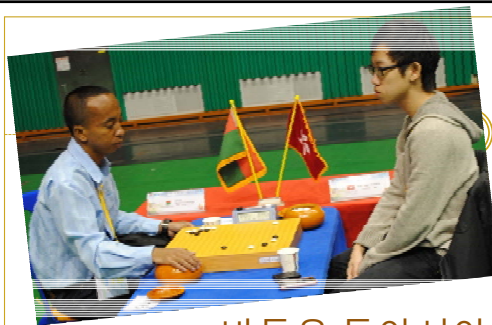


바둑은 한자로 '棋(기)' 또는 '碁(기)'라고 쓴다. 한국에선 바둑 (BADUK)이지만 일본은 '고 (GO)', 중국에선 '웨이치 (WEICHI, 圍棋)'라고 한다. 바둑은 흑돌과 백돌의 게임이다. 가로 42.5cm, 세로 45.5cm의 네모진 나무판의 반상에 놓이는 바둑알은 흑돌 181개, 백돌 180개. 반상 위에 가로 세로 각 19개의 평행선이 만들어내는 361개의 칸이 집이다. 이들을 놓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숨 막히는 수 읽기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계가(計家). 집과 포로(사석)의 합이 많으면 이긴다. 도중에 한쪽이 돌을 던지면(不計勝) 전투는 종료된다.



바둑의 기원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무려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 요(堯)임금이 어리석은 아들 단주(丹朱)를 깨우치기 위해 바둑을 만들어 가르쳤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구려의 승려 도림(道林)이 백제의 개로왕(蓋鹵王)과 바둑을 두었다는 얘기가 《삼국사기》에 전해진다. 백제의 학자 왕인(王仁) 등은 일본에 문화를 전수할 때 바둑도 전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둑이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게임의 토대를 갖추게 된 것은 일본에서다. 막부 시대에 바둑은 국기(國技)였다. 바둑을 업(業)으로 삼는 기사(棋士) 제도와 혼인보가(本因坊家) 등의 바둑문파가 이때 생겨났다.



바둑은 동아시아권에서만 둔다?  
그렇지는 않다. 물론 프로기사 대부분이  
이곳 출신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권의 전유물은 아니다. 전  
세계적인 놀이다. 많은 보급 활동되면서 잡기 취급을  
받던 바둑이 오늘날 본격적인 정신스포츠로  
자리매김되기에 이르렀다.



아메리카와,아프리카, 호주바둑 인구도 만만찮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바둑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 대회 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 특히 어떤 유럽나라보다도 러시아에서는 바둑 두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10만 명). 바둑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며 특히 한국에도 바둑인구가 상당하며 세계적으로도 바둑을 좋아하시고 바둑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바둑 오래 두면,두뇌 기능 활성화" 긴 시간동안 바둑을 두면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진다. 바둑이 머리를 좋게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인류와 역사와 함께 인간의 두뇌를 향상시키는 여러가지 수단들이 생겨나고 발전해왔다. 그리고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좀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 여러가지 놀이도 생겨났다. 나는 그 중에서 바둑을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한판의 바둑을 두는데는 여러가지 두뇌요소가 작용한다. 한국이 짧은 시간 내외는 많은 발전하게된 이유중 하나 아닐까 싶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러시아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바둑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한자로는 '棋(기)' 또는 '碁(기)'라고 쓰며, 별칭은  
 혁(奕)·혁기(奕棋)·위기(圍棋)·난가(爛柯:仙人들의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던 나무꾼이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를  
 정도로 세월이 지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굴중지락(橘中之樂)·수담(手談: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끼리라도 바둑을 두면 마음이 통한다는  
 뜻)·하락(河洛:河圖洛書, 즉 易에  
 由因하여)·좌은(坐隱)·흑백(黑白)·오로(烏露) 등이 있다.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 같은 바둑경기 4000년도 안  
 없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체스보다 더 많은 흥미를  
 느껴서 바둑에 많은 관심이 가게 된다.  
 어떤 바둑 두는 사람이 “동양과 서양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지만 바둑을 두고 있으면 그 강을 건너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바둑이 아시아에서 생겼지만 러시아, 유럽,  
 미국에서도 현재 많은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 바둑이  
 세계로 포쳐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두게 됐고  
 세계대회도 많이 열게 됐다. 그래서 나라, 국경, 문화  
 너머가면서 바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됐다.  
 바둑인라면 어떤 나라에가도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바둑을 승부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두었을 때 잘못두게 되면 그것을 거치기 위해서 본인 생각 바뀌어야하고 성격도 자연스럽게 거치게되면서 변화가 된다. 그래서 바둑 기사로서 생활하면서 바둑이 참 신기한 게임이라느것을 느끼게 됐다. 한판 두면서 삶을 한번 살아오게 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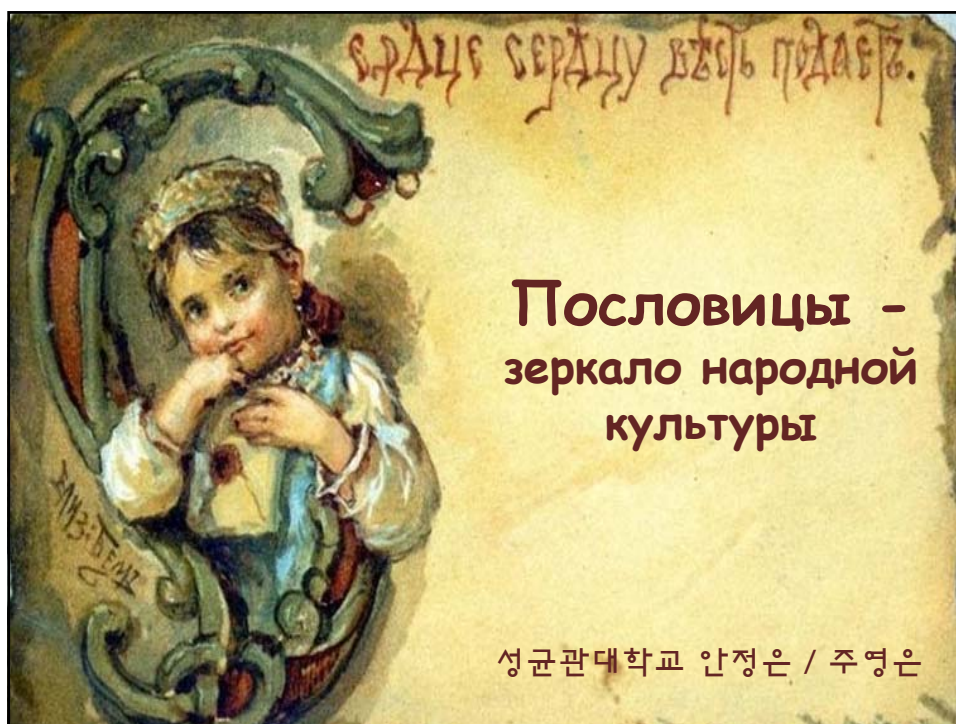


저도 바둑덕분에 러시아, 유럽나라, 한국까지 올 수 있었고 한국문화, 한국어 알게 됐다. 한국에 오면서 첫시절에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둑으로 어려움을 겪어이기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둑을 두서 한국 문화를 알게 되고 한국에 온 일이 제일 기쁜 일이 아닐까 싶다.



바둑덕분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알게 됐다. 바둑통해서 많은 문화 교류 할 수 있고 바둑이 세상을 연결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





## Содержание



### **Введение**

*Пословицы и этническая общность  
Что такое пословица?*



### **Общие черты**

*Любовь к семье  
Коллективизм  
Уважение к старшим*



### **Различия**

*Темп работы  
Манера речи*



### **Заключение**



## Введение>>

**Лев Владимирович Щебра:**

**«Каждый язык отражает культуру  
того народа который на нём говори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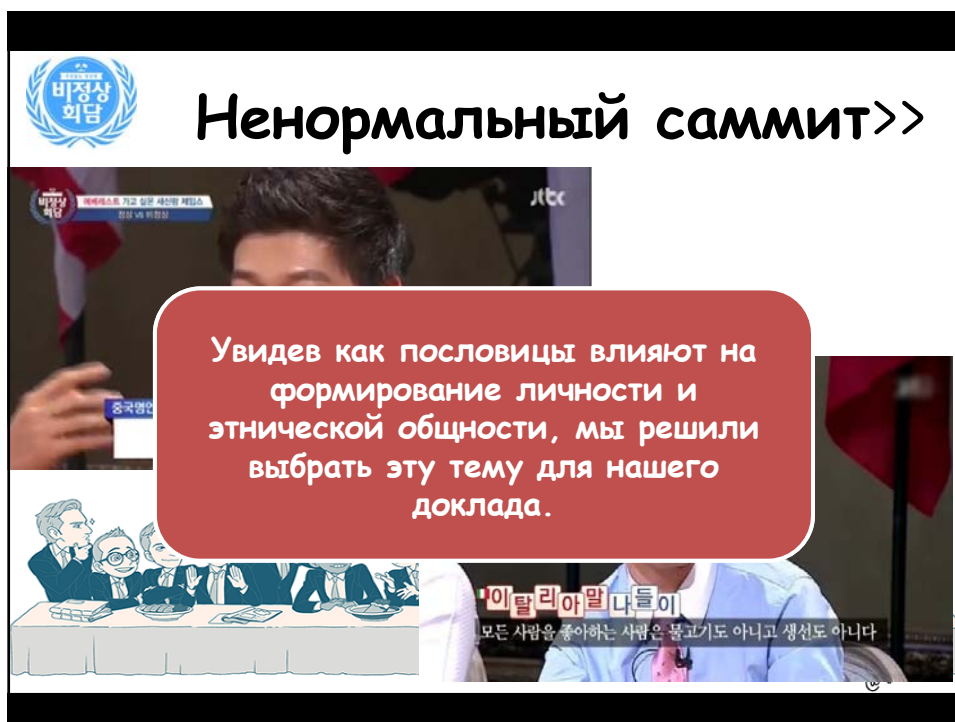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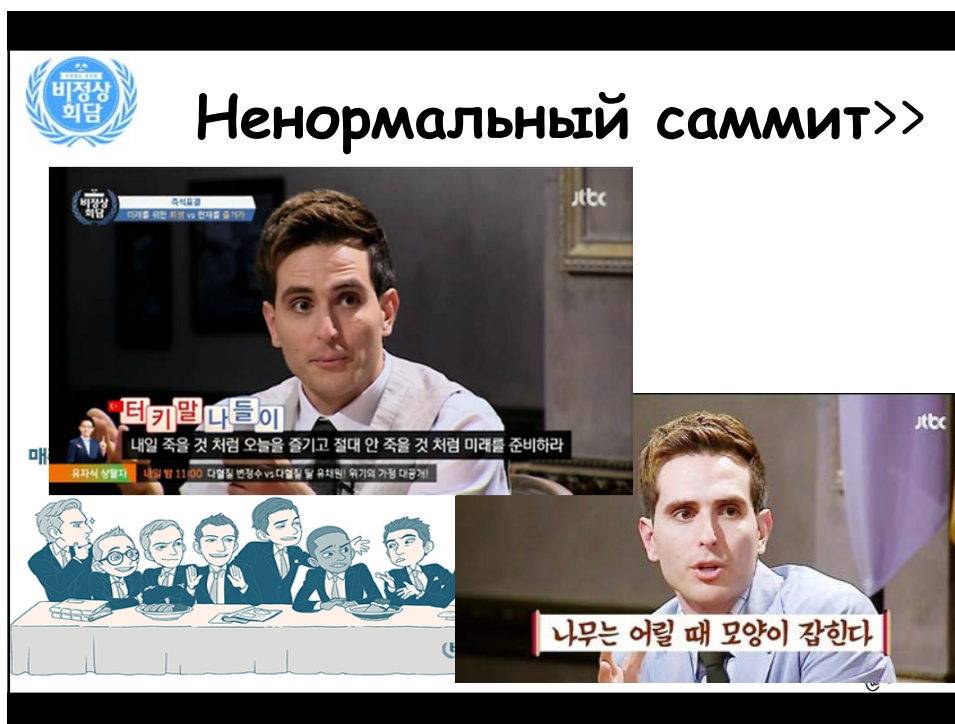
**Пословицы –  
самый мощный  
показатель культуры,  
потому что они отражают мудрость  
народа, которая передаётся потомкам.**



## “Ненормальный саммит”>>

- 11 иностранцев обсуждают различные темы, касающиес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 Энес Кая из Турции и Чжан Юань из Китая используют пословицы для аргументации своего мнения.





## Что такое пословица?>>



### Пословица

- это краткое образное законченное изречение,  
обычно ритмичное по форме, с  
назидательным смыслом

## Что такое пословица?

«Пословица -  
коротенькая притча.  
Это - суждение,  
приговор, поучение,  
высказанное  
обиняком и  
пущенное в оборот,  
под чеканом  
народности»





## Семейственность

### 1. 피는 물보다 진하다;

(Родная кровь важнее воды);

### 2.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

(Любой палец из десяти болит, если прищемить);

### 3. 자식 둔 골은 호랑이도 돌아본다.

(И тигр оборачивается на место, где оставил детёнышей)



## Семейственность

Русские пословицы  
тоже утверждают  
значимость семьи:

### 1. Вся семья вместе, так и душа на месте;

### 2. В родной семье и каша вкуснее;

### 3. На что клад, коли в семье лад.



## Коллективизм >>

- Преданность родным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реданность коллективу.
- В Корее именно эта особенность характеризует культуру народа.

“우리의식”  
«МЫ» - СОЗНАНИЯ



## Коллективизм



1.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Даже лист бумаги легче поднять вместе);
2. 열에 한 술 밥이 한 그릇 푹푹하다  
(С десяти по ложке риса - получится полная миска);
3.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  
(Муравьи несут ступу).



## Коллективизм

- Герт Хофстед
  -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российскую культуру в группе стран с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коллективистскими наклонностями.

1. На миру и смерть красна.
2. Со всякого по крохе, голодному - пироги.
3. Один в поле не воин.



## Коллективизм

- В России, легк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как незнакомые люди помогают вытащить машину, застрявшую в снегу.



## Уважение к старшим



- Корея - «восточная страна учтивости»
- Главная обязанность человека - почитание предков



## Уважение к старшим



1. 어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На тень старшего не наступают);
2. 찬 물에도 위아래가 있다  
(Бывает, что даже холодную воду пьют по старшинству);
3. 나랏님도 노인네는 섬긴다  
(Даже сам король почитает пожилых).



## Уважение к старшим

- В России также полагают, что о культуре общества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тому, насколько молодёжь почитает старших.
1. Яйца курицу не учат;
  2. Старцу пакости не твори;
  3. Не смейся над старым, и сам будешь стар.

## Отличия >>



VS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цы –  
люди, живущие в разных  
природных и соци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и имеющие разную историю.

## Характе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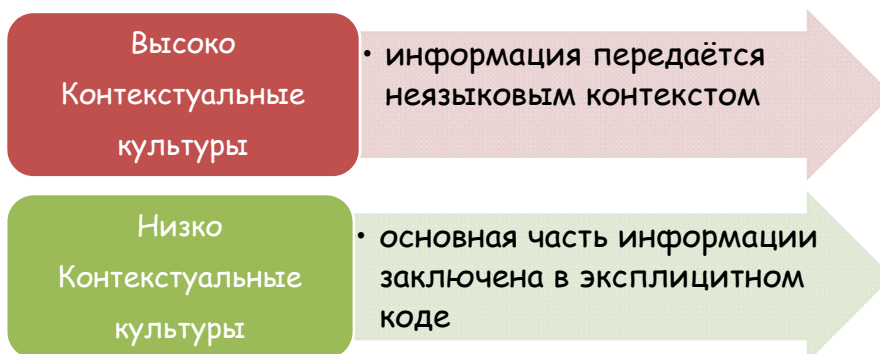
- Переживая суровый климат и жестокую историю, русские восприняли выдержку:
  1. Работа не волк - в лес не убежит;
  2. Тише едешь - дальше будешь;
  3. Спешка нужна только при ловле блох.

## Характер

- У корейцев горячий и торопливый характер. Если мы решили что-то сделать, делаем сразу, не раздумывая.
  1. 쇠뿔도 단김에 빼라  
(Вытаскивай рога из вола пока они горячие);
  2.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  
(В мгновение ока пожарят и съедят бобы);
  3.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Греби веслом пока прилив).

## Манера речи >>

- Эдвард Холл - автор книги «Беззвучный язык».



## Манера речи

- Корея имеет высококонтекстуальную культуру

1. 글 속에 글이 있고, 말 속에 말이 있다  
(Письмо в письме, слово в слове);
2. 쫄떡같이 말 알아라  
(Пойми меня как рисовый пирог с полыньёю);
3. 말 속에 뼈가 있다  
(В его словах чувствуется кость).



## Манера речи

- В противополож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манере, в России прямая манера речи.
- Русские не боятся выразить свои мысли:

1. За спрос в лоб не дают;
2. Сидеть можешь криво, но говори прямо;
3. Спрос не грех, отказ не беда.



## Заключение >>

### Общие черт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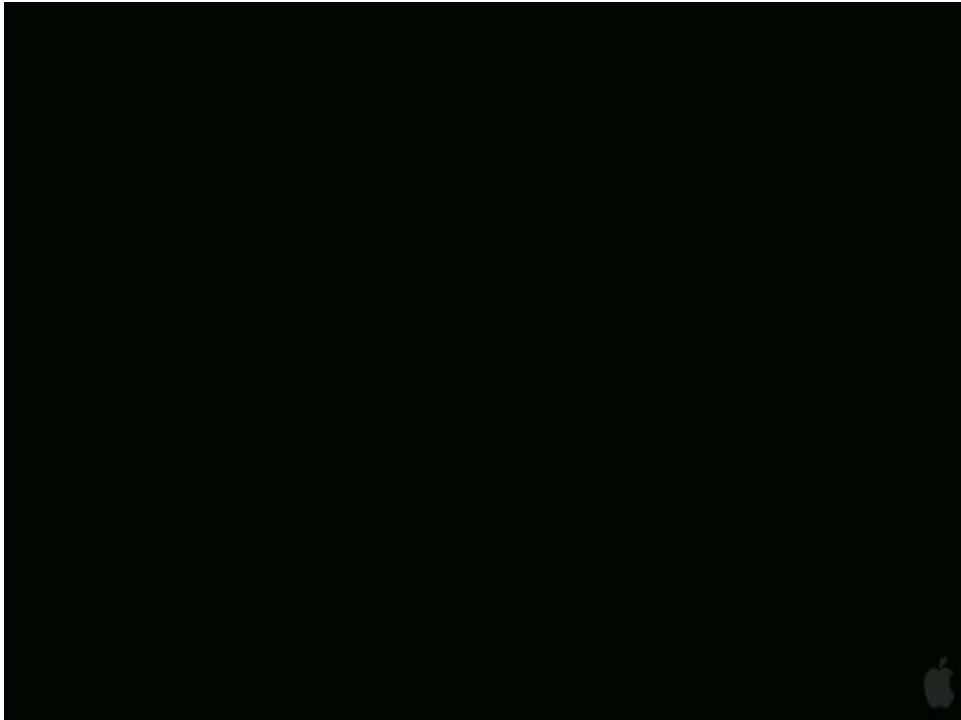
- Любовь к семье
- Уважение к пожилым
- Важность коллективизма

### Отличительные черты

- Темп работы
- Характе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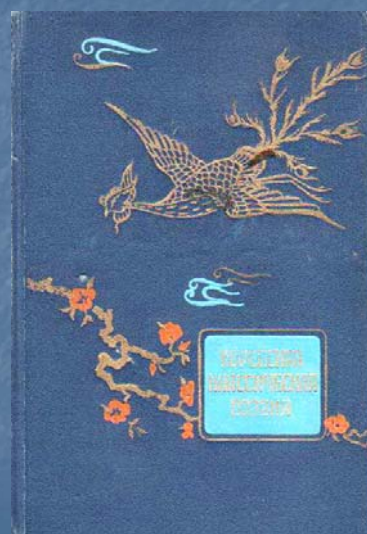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 시 종류:

- 전통적인 서정시
- «순수시»
- 모더니즘 (현대식)
- "민속 시"
- "참여 시"
- «시조»
- “장가”



## 전통적인 서정

1920 년 부터 전 통 적 인  
서정이라고 하는 시의 방향이  
설립했고 1949 년에 “문화 과  
예 술” 이 라 고 하는 잡 지 에  
이린현기, 이동주, 정병출 등  
다른 시인도 발표 된다.

###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НЕБО

Я на небо вернусь,  
За руки взявшись с росой,  
Исчезающей от прикосновения  
рассветных лучей.

.....  
Я на небо вернусь,  
И в день, когда закончится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этому  
Прекрасному миру,  
Поднимусь и скажу, как все  
было чудесно...



## «순수시»

### ИДУ ПОД ДОЖДЁМ

1950 년대 후반에 한국  
문 학 에 박 체 자 와  
박용철 대표로 "순수시"  
방향을 전형적인 “예술  
위 한 예 술” 에 대 한  
시를 쓴다.

Дождь идёт,  
Во мгле  
Иду.  
Дождь, туман, подёнки -  
Всё перемешалось,  
Стало вечерним маревом,  
Стало капканом.  
(Так уж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оски из хлопковых ниток  
Промокают насквозь.





## 모더니즘 (현대식)

1950 년대의 한국 문학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모더니즘이었다. 1930  
년대에 제기 된, 시인  
김기영 로마 문학과 이론  
서양 지성을 기반으로  
시작했다.

### ДУ БО

Солнце погасло за горой,  
Слезам печальными  
Река наполнена, не водой.

.....  
У черты горизонта, на небе ли,  
на земле,  
Есть ли приют в этом мире,  
Посреди беспросветной ночи.



## "민속 시"

### ГОЛОДНАЯ ВЕСНА

한국시의 새로운 트렌트를  
표시한 작품이 1970 년대부터  
적극적으로 개발되었고  
"민속시" 라고 불렸다.

4 월 혁명은 한국 문학의  
새로운 발전에 자극을 주었다.

Солнце весной  
Слишком медленно заходит.  
Соевая каша уже почти вся выкипела,  
А жена, ушедшая искать корень пуэрарии,  
Всё не возвращается.  
Как будто должно случиться что-то  
непоправимое,  
Так солнце красно горит.  
Дети,  
Забыв даже о картофеле, который закопали в  
золе,  
У угла теплой трубы,  
Прижавшись друг к другу, о голодной весне  
Переговариваются.



## "참여 시"

### ЦВЕТОЧНОЕ СЕМЯ

모더니즘 예술 후에 새로운

이상은, "참여 시" 주요

역할은 달 병출이 실행 시인에  
의해 연주하였다.



Осенним днём

На ладони лежащее семя цветка,  
Мелкое зёрнышко!

.....  
В нём созрело дыханье горячей  
зари,  
Полдень яркого лета,  
Буйство кроваво-красных цветов.  
Может быть, потому на ладони  
моей  
Чувство полновесной тяжести?

.....  
Сегодня, выбрав одно-  
единственное семечко,  
Возле окна бесконечного  
ожидания  
Хороню признание вчерашнего  
пышного дня.

## «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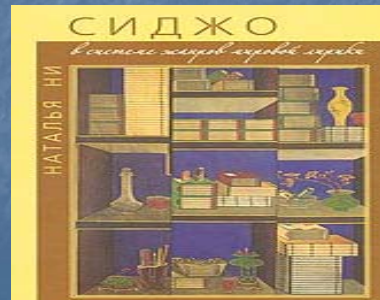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한 한국 전통 시  
양식의 하나이며, 조선 시대에 유행한  
시가 양식이다.

시조는 형태적 특성에 따라 몇 갈래로  
나뉘는데 이중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는 정형시이다. 그 밖에는  
형식적 특징으로 구별되는 엮시조,  
사설시조 등이 있다.

Ты облако лазурное лелеешь.  
Мне белоснежное - милей всего.  
Твоя отрада - знатность и  
богатство.

Мне по сердцу и бедность и покой.  
И сколько б ни смеялись надо  
мною,

Я буду твердо на своем стоять.  
Юн Сон До (1587-1642)  
(перевод А.Ахматовой)



## «장가»

수 년 에 걸쳐 , “ 시 조 ” 는  
실질적으로 바뀌었. 이 변화는  
주로 라인의 역할 및 시조 음절과  
같이 수를 기준으로 리드미컬한  
피트를 연속으로 전환해왔다.

덧붙여 말하자면, 또한 자유시를  
기반으로 20 세 기 한국 시 의  
특징 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의 형태는 “잡가” =  
“혼합된 시” 또는 “장가” = “긴  
시”라고 불렸다.

Эти брови - словно мотыльки,  
Зубы - словно семечки арбуза;  
Лик, когда меня завидишь ты,  
Заалееет персиковым цветом,  
Что расцвел в полуночном  
дожде!

Сделаюсь я тоже мотыльком,  
Стану за тобой летать повсюду,  
Где бы ты, куда бы ты ни шла!

СТИХИ НЕИЗВЕСТНЫХ АВТОРОВ  
(в переводе Ахматовой)



## 안나 아흐마토바

연결된 실마리 중 하나는  
A.A. 아 흐 마 토 바 라는  
번역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러시아  
독자들에게 한국 시의  
훌륭한 번역작품을 가져다  
준 번역가이고, 스스로가  
한국고전주의 시 작품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흥미를  
느끼고 눈을 떴다.





## 한국어 시의 특징:

- ❖ 달
- ❖ 소나무
- ❖ 물
- ❖ 꽃
- ❖ 눈
- ❖ 돌의 형상
- ❖ 시간의 선물
- ❖ 고독감
- ❖ 쓸쓸함



## 안나 아흐마토바. "한국 시 모방"



### ПОДРАЖАНИЕ КОРЕЙСКОМУ

Приснился мне почти что ты,  
Какая редкая удача!  
А я проснулась, горько плача,  
Зовя тебя из темноты.

Но ты был выше и стройней  
И даже, может быть, моложе  
И тайны наших странных дней  
Не ведал. Что мне делать, боже?

Что!.. Это призрак приходил,  
Как предсказала я полвека  
Тому назад. Но человека  
Ждала я до потери сил.

А.Ахматова



Любимый, мне приснившийся в ночи,  
Исчез бесследно, чуть я пробудилась.  
Куда ж великая ушла любовь,  
Любовь, что в сердце у тебя кипела?!  
Являйся чаще, о, хотя б во сне!  
Нет, нет, не надо, сон – лишь призрак тщетный...

(перевод А.Ахматовой)

그리운 님이여, 나의 꿈에 나타나주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나는 잠시 잠에서 깨었네  
위대한 사랑이여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사랑, 그 어떠한 것이 너의 심장에 불타고 있는 것인가?!  
더 자주 나타나주오, 오, 그것이 꿈일 라도  
아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꿈은 고작 헛된 것 일뿐이다.

(박효관)

## 안나 아흐마토바의 번역시와 자기 시 비교

### КУКУШКА

Я живу, как кукушка в часах,  
Не завидую птицам в лесах,  
Заведут – и кукую.  
Знаешь, долю такую  
Лишь врагу  
Пожелать могу я.

1911г.

А.Ахматова

Кукушка в пустынных горах!

Скажи мне, о чем ты  
рыдаешь?

Неужто ты так же, как я,  
Покинута кем-то жестоко?!  
И сколько ни будешь рыдать,  
Вовек не услышишь ответа!

Пак Хё Гван

( в переводе А.Ахматовой)

## 20 세기 현대시 번역

### 48. 저녁 눈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썬 소리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봄비다.

<1969>

### 48. ВЕЧЕРНИЙ СНЕГ

Снежинки вечерней порой  
 Под лампой конюшни роятся,  
 Снежинки вечерней порой  
 Под копытом лошадки роятся,  
 Снежинки вечерней порой  
 Под хруст нарезания корма роятся,  
 Снежинки вечерней порой  
 В захолустьях окраин роятся.

(1969) **Пак Ён Рэ** (в переводе  
**Ларисы Писаревой и Ким**  
**Хён Тхэк 2004 года)**



## 릴리아 번역집

Вечер поздний. Над лампой снежинки роятся,  
В тихом танце над старой конюшней кружатся...  
Если корм нарезают, то хруст – это норма.  
Но когда под копытом снежинки роятся,  
Они падать на землю, наверно, боятся...  
Пусть кружат в захолустьях и будут довольны –  
А хрустеть под копытом не весело – больно.



### 48. ВЕЧЕРНИЙ СНЕГ

Снежинки вечерней порой  
Под лампой конюшни роятся,  
Снежинки вечерней порой  
Под копытом лошадки роятся,  
Снежинки вечерней порой  
Под хруст нарезания корма роятся,  
Снежинки вечерней порой  
В захолустьях окраин роятся.

Пак Ён Рэ (в переводе Ларисы  
(1969) Писаревой и Ким Хён Тхэк 2004  
года)

### Чон Сан Бен

#### 36. ПТИЦА

Новый день  
Заполнит собой пустоту,  
Когда дух одинокий мой,  
В одиночестве мир покинет.

Встретит пеннень птица  
Наступление нового дня,  
Лепесткам суждено раскрыться  
Уже без меня.

Но о жизни, любви, красоте  
Время песен случится.  
И теперь, наверно, я –  
Та кричащая птица,  
Что на ветке сидит у ручья.

Переполнено сердце чувством,  
День, когда радость и грусть воедино связаны.  
В миг прозрения, мрака, забвения,  
Пой, птица, кричи  
Надорванными, старыми связками.

Словно плачет о жизни прошлой,  
О том, что было плохого,  
Что было хорошего –  
Так кричит одинокая птица.

(1999)



### ОДИНОКАЯ ПТИЦА

Одиночество в жизни моей  
До конца дней меня не покинет,  
И душой опустошенной своей  
На пустом месте снова возникнет.

Новый день наступает  
Криком плачущей птицы,  
И цветок раскрывает бутон,  
Но уже без моего участия.

Но придет это время,  
И я буду птицей,  
Сидящей на ветке у ручья,  
И буду петь я о жизни, любви и красоте.

Вся природа чувством полна,  
А погода печалью и радостью.  
Пой же, птица, старыми песнями  
В миг прозрения, мрака, забвения.

Что плохого было и будет,  
Что хорошего ей не вернуть...  
Плачет так одинокая птица  
О печально прожитой жизни своей.

*Переводчик прозы – раб, а переводчик поэзии – всегда соавтор.*



*В.А.Жуковский*

*산문을 번역하는 것은 노예의 일이고 - 시를 번역하는 것은 항상 공지자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쭈코브스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